

SNU ECE LIFE

서울대학교 전기 · 정보공학부 소식지

2013 상반기

CONTENTS

- 02 신임교수 인터뷰
- 03 우수논문상 수상자
- 04-05 대학원 협방
- 06-07 전공라나
- 08-09 축구대회
- 10-11 장학금
- 12-13 전자전, 졸업프로젝트
- 14 교환학생
- 15 다독상
- 16 신임생 도우미
- 17 전공학생 도우미
- 18 봉사상
- 19 봉사활동
- 20 학생센터 특강
- 21 교내영화 감상회
- 22-23 커리어포럼, 기적탄후기

신임교수 인터뷰



윤성로 교수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학사	1992 - 1996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Electrical Engineering 석사	1999 - 2002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Electrical Engineering 박사	2002 - 2006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Postdoctoral Scholar	2006
미국 Intel사 Senior Engineer	2006 - 2007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2007 - 2012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012 - 현재

Q. 부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내기로 관악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약 20년 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관악에서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학부의 보금자리인 301동 건물도 신축된 지 15년 이상 되었다지만, 체계는 새롭고 흥미로운 곳입니다.

공대폭포/공강/사강 등 추억이 깃든 곳들이 없어지고, 수족관 / 2열 / 5열 / 6열 등의 별칭으로 불리던 도서관 열람실은 선뜻 나서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네요.

하지만 훌륭한 연구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수업환경도 제 학창시절 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멋진 관악에서 다시 생활하게 되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학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Q.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직 배움이 많고 경험이 짧아 이런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네요. 제 자신 또한 간절히 답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학문적으로는 굽힘 없는 진실 탐구, 학자이기 전에 개인으로서는 행복한 삶과 가족. 거창한 문구들이 떠오릅니다만, 실제로 이런 가치들에 최적화된 생활을 해왔나 돌아쳐보니 부끄럽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아빠보다 호빵맨 (만화 주인공)과 마이쥬(사탕류)가 더 좋다는 어린 두 딸들에게 특히 미안하네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보적 (complementary)입니다. 우선 “바이오컴퓨팅”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더 이상 실험학문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 정보과학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첨단 전기정보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컴퓨팅 연구에 밑거름이 되는 알고리즘(데이터마이닝, 신호처리) 및 시스템 (병렬처리, 임베디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 다루기 힘든 방대한 양의 생명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바이오컴퓨팅은 많은 연구 및 사업화 기회가 있는 새롭고 역동적인 분야이며, 특히 전기 정보공학자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Q.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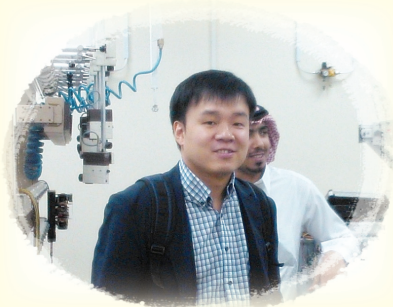
아래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모든 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우수 논문상

석사 10 조병갑 (MWNL 연구실)



저는 학부 졸업 후 6년간 한국 전력공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에 석사과정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많이 굳어진 머리로 대학원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이렇게 수상소감까지 쓰고 있으니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부

족한 제가 우수논문상까지 받으며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님이신 최성현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관심, 그리고 항상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함께 연구하며 서로의 잠재력을 키워주었던 연구실 선배들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MWNL (Multimedia Wireless Network Laboratory) 연구실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Wifi, LTE, WiMax 등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및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사 기간 동안 저의 주된 연구주제는 VoIP (Voice over IP) 성능향상에 대한 연구였고, 이로 인해 저는 LTE에서의 VoIP 구현 기술인 VoLTE (Voice over LTE) 성능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원할당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졸업논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OFDMA 기반의 LTE에서는 시간과 주파수라는 이차원적 자원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전체 성능을 최적화하는 자원할당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자원할당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연구분야는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 여 동안 교수님과 같은 연구팀 학생들과 매주마다 팀 미팅을 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도 나누고 교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음성 트래픽의 특성과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새로운 자원할당 알고리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수님과 같은 연구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우수논문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의 연구실 생활에서 교수님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개개인 스스로의 스탠더드를 높여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로 인해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최성현 교수님의 지도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중동지역에서 기술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선 자신의 분야에 specialist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도 두루두루 알고 있는 generalist가 되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으로 있던 2년 동안 매주 가진 랩세미나와 이병기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과의 코랩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초청세미나 등을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낸 2년의 생활이 현재 저의 업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우수 논문상’이란 ?

전기·정보 공학부는 매학기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진행 한다. 수 많은 논문들 중에서 우수한 논문은 우수논문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논문의 내용 및 발표를 바탕으로 교수님들이 1개의 석사 우수 논문을 선정한다.

1. 연구실 소개

2008년에 제가 전기공학부에 부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전기공학과 의학을 결합하여 환자를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이오엔지니어링 혹은 의공학의 일부입니다.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연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학위 과정은 지식 습득과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실에서 따라올 수 없는 심오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든 학위과정 학생들은 각자 공부하고 연구하며, 팀을 이루어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회의에서 각자 연구 내용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발표하기 때문에, 서로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이 일상적입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의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즉시 해결형’ 연구 주제를 3개 이상 경험합니다. 실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해결 과정을 제시하며, 부족한 지식은 스스로 학습합니다. 참고자료를 뒤적이며 공부하는 것이 전체 연구실 생활의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석사 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5년 혹은 10년 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연구를 선정하여 집중 진행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에 매달리다 보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 ‘즉시 해결형’ 연구 주제를 하나 병행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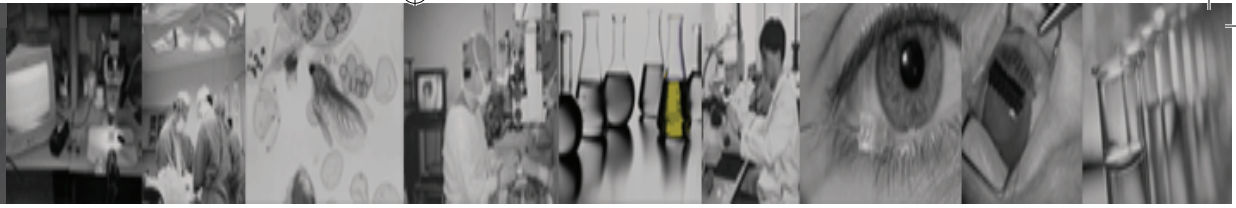
2. 이력이 특이한데?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자공학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고 3 때 우연한 계기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과학자’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아서, 학기 중에 틈날 때마다 도서관에서 최신 학술지를 읽었습니다. 방학에는 공대에 다니는 친구들과 프로그래밍 스터디를 하였고, 공학수학과 선형대수학, 통계학 등을 혼자 공부하였으며, 생화학교실, 병리학교실에 나가 선배들을 귀찮게 하면서 다양한 실험 기법을 배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조원, 수련의, 안과 전공의, 전임의를 하는 동안, 정말 운 좋게 이러한 자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한 핵의학회의 의뢰로 임상검사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서울대병원 전자무기록 사용자 화면 구성과 임상 검사장비 운동장치 개발을 담당하여 세계 최초의 디지털 병원을 만드는 데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도에 시작한 인공시각장치 개발 연구팀에 합류하여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의 눈에 초소형 칩을 삽입하여 시각을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시간보다 연구에 쓰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안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 의뢰가 계속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연구와 학생 교육을 위하여 전기공학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3.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자신이 말하려는 이야기를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많이 읽어 본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관된 주제의 긴 글을 많이 읽어 본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글들이나 달변가의 말은 짧아서, 읽거나 들을 때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부정확한 지식들이 많아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추가 내용을 빠르게 찾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면 도움이 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지식을 습득하려 한다면, 부정확한 지식에 또 다른 부정확한 지식이 더해져서 엉터리 지식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책은 ‘교과서’라고 불리는데, 전공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 서적들 역시 ‘교과서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세계문학전집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을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책입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책들이 몇 권이나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고전들의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러한 책을 최대한 많이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 지도교수 서종모



박사과정 김현



박사과정 이은희



석사과정 서민원



석사과정 이유람



석사과정 오다롱

Q.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김현: 대학교 4년간 전기·정보공학부의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배우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엔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더 많은 공부를 심도 있게 하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희: 학부시절 방학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 회사에서 3개월간 연구를 하면서 학부에서 배운 것들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원: 학부 졸업 후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깊은 지식은 부족한 것 같아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 과정만으로는 기업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학원은 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동향이나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우람: 학부 시절 때 의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에서 들을 수 있는 의공학과 관련된 수업은 매우 적어서 제대로 공부 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경험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다롱: 어릴 때 어느 영화를 보고 인공 신경계를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실현해 보려고 행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연구실의 특색이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현: 저희 연구실은 의공학 연구실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배웁니다. 생체신호 측정에 쓰이는 전극 개발에 필요한 공정부터 진단에 필요한 이미지 처리까지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명 정도 되는 작은 연구실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끼리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실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서로의 스케줄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이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께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서민원: 연구 환경도 그렇고 교수님과 대화나 미팅 과정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연구 주제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교수님과 자주 대화하여 쉽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우람: 연구실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수님이 의사 이시기 때문에 연구할 때 의학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기면 해당 의학 지식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다롱: 지도 교수님이 의학박사라서 다른 의사 분들과 공동연구가 많기 때문에 임상실현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Q. 대학원 생활을 하며 학부 시절과 비교해 많이 달라진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김현: 학부와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부 때는 책, 과제물들이 전부 주어지지만 대학원 과정부터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알아서 찾아야 하고 그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공 공부 외에도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과 발표 능력 향상, 그리고 시간 분배를 잘하는 방법도 익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은희: 가장 달라진 부분은 스스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른 누가 아닌 연구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학부시절에 비해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해나간다는 점입니다.

서민원: 학부 때는 정해진 교과 과정에 따라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이 정해져 있지만, 대학원 과정은 정해진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내기 위해 과정을 계획하고 과정에 맞춰 장비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우람: 연구는 학부 때 수업을 대비해 공부하던 방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학부 때에는 주어진 교재로 공부를 하고 숙제를 받으면 그에 대한 답을 내면 그만이었지만, 연구라는 것은 자신이 알아서 공부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를 과도하게 잡게 되면 결론을 내기 힘들며 쉽게 지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결국 남들과 논쟁할 수 없는 자기만을 위한 결과만이 남게 됩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힘들다고 느꼈던 건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다롱: 개인시간과 연구시간이 분리되지 않아 쉽게 지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식적으로 여가활동을 해서 개인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들에 휩쓸리다 보면 연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Q.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현: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세부 전공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인턴으로 연구실에서 생활해 보는 것도 세부 전공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은희: 대학원에 진학하며 연구 분야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휘둘리거나 미래에 유망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다면 대학원 진학 시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원: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하자면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의 여러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듣고 자기가 생각한 진로와 연구가 맞는지 잘 알아본 다음 진학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 생활은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게 공부하는 것인 만큼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우람: 자신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길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오다롱: 공부하다 보면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OO를 만들겠다', '△△를 알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진학하면 대학원 생활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전공하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부 11 김홍찬

저는 2011년 전공하나를 다녀오지 못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전공하나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전공하나 준비팀을 모집 중이었고 명찰준비팀장을 맡게 되었죠. :)



준비팀의 입장에서 본 전공하나를 힘들긴 하지만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백명이 움직이는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준 준비팀들과 총괄했던 조창웅 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았는데 와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가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것들 중 하나는 너무 바쁜 전기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엠티 한 번 잡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과 이렇게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도 좋았습니다.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교수님들께 궁금한 것들도 묻고 조언도 받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과장을 말아서 2013년 전공하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발전한 전공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팀의 노력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공하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전공하나 양지파인리조트(경기도 용인)

9. 21 ~ 9. 22



학부 12 이호성

저는 전공하나에서 레크리에이션 준비팀에 소속되어 행사,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팀은 현장에 가서 진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실수, 사고들에 대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족한 후배를 데리고 행사를 진행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공 하나는 우리 학부 학생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서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님, 교직원까지 약 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행사 진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보람되었습니다.

전공하나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선배들과 하나되어 함께하던 반 대항 운동회입니다. 반 대항 운동회에서 저희 팀이 우승하여 회식비도 지원 받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와의 대화에서는 교수님께 편안하게 질문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 대학원 연구실 소개, 동아리공연, 장기자랑 시간, OX퀴즈, 게임대회 등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다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전공하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년보다 더욱 발전된 전공하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투른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대회



· 준비위원팀 후기 ·

2012년 전기·정보공학부 축구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07학번 황규영입니다. 11월 23일 결승전을 끝으로 한 학기 동안의 축구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운영을 도와주신 교수님들, 학부 행정실 선생님들, 준비팀 및 심판진, 각 팀 선수들 및 팀 대표 분 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기·정보공학부의 대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30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대회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참가비를 대폭 낮췄고, 참가하는 모든 팀들에게 팀별 유니폼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승, 준우승 팀 이외에도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모든 팀에게 혜택을 제공 하였습니다. 30팀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대회 참가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한 팀들이 더 다양한 팀들과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게 준비한 준비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층 발전된 대회를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비해 참가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이 약 2000명이라는 점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들을 통해 학부 안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전기·정보공학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회 주치는 학부 사무실과 준비팀에서 하지만 대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무실 선생님들과 교수님, 준비팀은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이 대회는 학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상통하지만 아직 수동적인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운영하는 축구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2013년 축구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우승팀 FC물루를 비롯하여 제가 속했지만 급탈락한(^^) 마일드 th+르틴, 아쉽게 준우승한 MISA, 그 밖에 열정적으로 대회를 참여해주신 모든 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들과 함께한 준비위원장 학부 07 황규영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운영하는 축구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ISA



FC 봉봉



FC 롤루
(결승)



FC 롤루
(4강)



2012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축구대회
시상식
2012.12.14.(금)

우승팀 : FC롤루
준우승팀 : MISA

전기·정보공학부 축구대회는 학부의 연례 대표 행사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땀을 흘리며 축구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Scholarship 장학금

장학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학부 홈페이지(eei.snu.ac.kr)를 참조해 주세요.



학부 08 김진성

김정식 특지 장학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정식 특지장학생으로 선발된 08학번 김진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혜한 장학금은 대덕 전자 김정식 회장님께서 우리 학부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장학금입니다. 올해 들어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침 김정식 특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번 학기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버리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님께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지난 8월 장학생 수여식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김정식 회장님과 우리 학부 교수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식 회장님께서 인생의 조력자로서 그리고 같은 일터의 선배로서 넓고 깊은 조언을 해주셨고, 게다가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신문 구독의 기회를 주셔서 더 기쁩니다. 덕분에 지금도 매일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분의 학교와 후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만큼 책임도 따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 사랑을 사회와 학교, 후배들에게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주신 김정식 선배님과 추천서를 써주신 이종호 지도교수님, 그리고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영 장학금

고영테크놀러지는 3차원 정밀 측정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며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도 진출한 벤처기업입니다.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은 전기공학과 76학번 동문이신 고영테크놀러지 고광일 대표님께서 학부 후배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학기당 250만원씩 1년 동안 학부생 1명에게 지원됩니다.

저는 2011년 한 해 휴학을 했었습니다. 복학 준비를 하며 학부 홈페이지 장학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때마침 학비 외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고영테크놀러지 장학생 선발 공지를 보게 되어 장학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과정은 지원서 및 추천서 제출 후 동문선배님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면을 통해서이지만,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긴급한 요청을 받아주시고 추천서 작성을 흔쾌히 해주신 서종모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덕분에 무리 없이 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언제나 모자라고 학점은 늘 아쉬움을 남기지만 장학금이 있어 많은 전공과목들 사이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는 체력이 필요한 법이니깐요, 학생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등록금과 치솟는 물가 속에서 후배들의 학업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고 성장한 후배가 사회에 진출하여 학업에 있는 후배를 지원하고 그 도움을 받은 후배가 또다시 자신의 후배를 지원한다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마련에 힘겨워 하는 후배들은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겠지요.

저 또한 이 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그리하여 후배들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싶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업을 놓치게 되어 고민하는 후배가 있다면 꼭 지원해 보기를 권합니다.



학부 09 전범준

알프리 장학금

안녕하세요. 2012 학년도 2학기 알프리 장학금을 수혜 받은 07학번 이동영입니다. 알프리 장학회는 서울대 학교 전기동문회 동문 선배님 중 기업을 운영하는 선배님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장학회입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장학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학금 취지와 조금 어긋난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학부 홈페이지에서 장학생 선발공지를 보고 우연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등으로 1차 선발이 이루어지고, 담당하시는 동문 선배님과의 면접을 통해 2차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장학금은 한 학기당 250만원으로 중복수혜가 가능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한 번만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면접에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면접관님께서 동문 선배님께서 운영하시는 분야에 관련된 회사를 소개해주시고, 공부 하는 자세 등 많은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단지 제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면접이 아니라 선배님께 조언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장학금을 받는 것만큼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벤처에 뜻을 두고 있는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이 있다면 꼭 지원해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취직과는 다르더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알프리 장학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학부 07 이동영

알프리 장학금

처음에는 알프리 장학금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공강 시간 우연히 학부 홈페이지 공지글을 보다가 알프리 장학생 선발 내용을 접했습니다. 알프리 장학회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동문 선배님들이 주축으로 만든 장학회로, 후배들이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원을 할지 말지 망설였지만 자격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일단 한번 넣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학생센터 e생생에서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면접이라 긴장을 했었는데, 면접관님께서 친근하게 잘 대해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의 내용은 주로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알프리 장학회를 운영하시는 선배님들은 주로 벤처기업을 운영하십니다. 따라서 창업이나 벤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지원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창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을 이수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연구를 해 나갈 것이냐며 질문을 하였고, 그 연구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잘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 장학금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받을 수 있다는 기회도 많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 시기를 놓쳐서 기회를 놓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후배님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알아보신다면 꼭 좋은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파이팅!!!



학부 09 장창원



2012년도 장학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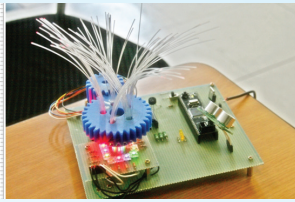


김정식 선배님의 책 추천

전기·정보공학부 행사 2012년도 전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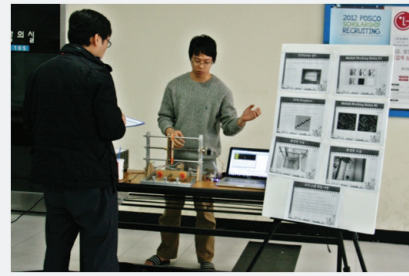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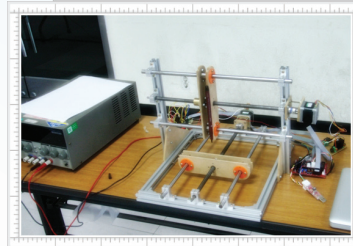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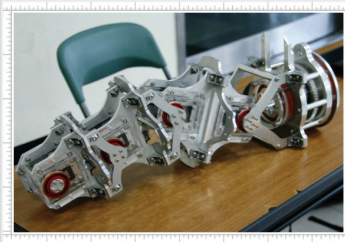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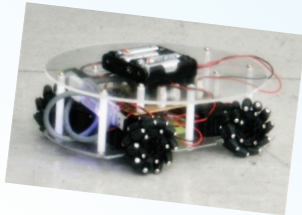
전자전은 원하는 전공분야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행사로서

참가팀은 약 30만원 이내의 부품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은상

1. Electric (학부 11 김기환, 학부 11 김현태)
2. Team KCL (학부 09 김현진, 학부 12 이재은 외 2명)



동상

Ocean's Eleven (학부 07 유성근, 학부 11 최혁주, 학부 11 하오권 외 9명)



장려상

1. 3idiots (학부 10 김현준, 학부 10 이성찬, 학부 12 양준모)
2. 아티스마 (학부 10 이상일 외 1명)
3. WALK9 (학부 10 김현준, 학부 10 이성찬 외 3명)
4. 108번뇌 (학부 11 하오권, 학부 11 최혁주)

☆ 전기공학설계프로젝트 포스터 발표회

주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1. 수강희망신청

매년 3월 2주, 9월 2주
3월 신청은 당해년도 2학기 수강생
9월 신청은 다음해 1학기 수강생 대상

2. 과제지망

매년 4월 셋째주
10월 둘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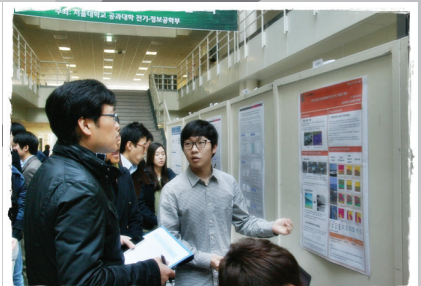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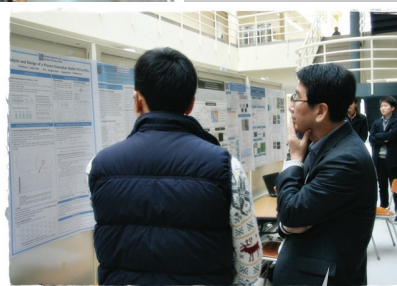
3. 과제면담

교수님께 지원 메일 & 연구실에 전화
면담 일정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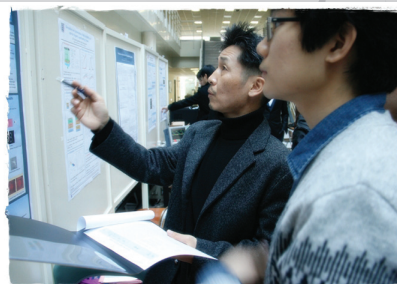
4. 수강신청

학부의 수강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



5. 중간발표

공고된 일정에 따라 학기중 4회 발표
개인당 10분 이내
과제내용, 진행정도, 앞으로 할 일



6. 최종발표

매년 5월, 11월 중 공고된 일정에 따라 301동 1층에서 포스터로 발표
위촉된 교수님들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 성적은 지도교수님께 조교가 전달

7. 논문작성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경까지 학부에 제출

교환학생 수기

- 학부 11학번 강익성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여름학기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전기·정보공학부 11학번 강익성입니다. 저는 UC Berkeley에서 60여 일 간 생활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해부학과 평소 관심이 많았던 정수론을 들었고, 강의를 듣지 않는 시간에는 교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Berkeley 시내를 돌아보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 “한국과는 다른 미국 대학 강의 문화”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학생들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와 미국 학생들의 태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discussion을 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미국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 소형 강의의 경우** 서로 모르고 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마칠 때쯤 어느새 친해져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문화를 인정하게 되고, 저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의 중간에 제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고, 많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 ‘SF Pride Day’ : “캘리포니아 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은 바로 ‘San Francisco Pride Day’에 직접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6월 하순에 열리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이틀 동안에는 대형 퍼레이드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중심 거리로 통하는 교통은 모두 통제합니다. 이 퍼레이드를 통해 여러 성소수자(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단체 및 개인들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단체들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멋진 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기존 성소수자들이 ‘Pride’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축제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청 앞 넓은 잔디 광장을 개방하고, 그곳에 음식 및 주류 판매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다채로운 테마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의 ‘Bay Area’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을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Bay Area는 한국과는 달리 해양성 기후라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하지 않으며, 겨울에는 서늘하고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이곳에는 관광 명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Stanford에는 미국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는데, 캠퍼스 내 모든 건물이 고대 그리스 양식 그대로 지어져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중해식 건축 양식을 따르는 건물들이 도시 전체에 분포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도시 Santa Barbara, 거대한 코리아타운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중심 도시’라는 별명에 걸맞는 도시 발달 수준을 보여준 Los Angeles, 그리고 거대한 자연 속에서 2박 3일 동안 쉴 새 없이 감동을 받은 Yosemite National Park 등 60여 일 간 캘리포니아가 제게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 “내게 교환학생의 의미란?”

지난 여름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미국 문화를 꼭 체험해 보기로 다짐했었고 또 Stanford와 UC Berkeley에 계시는 선배님들을 뵈어 진심어린 조언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솔선수범으로 보여준 ‘열린 마음과 조화 정신’, 미국 강의를 들을 때마다 와 닿았던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 그리고 ‘사람 관계에의 친화성’ 등은 한국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분명 그 문화만이 갖는 강점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Stanford와 UC Berkeley에 계시는 선배님과 시간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꿈을 다시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 이번 교환학생 체험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책을 읽게 되는 이유

스피노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모든 전공을 깊게 파고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현대에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지니는지를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을 이해하고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멀리보고 크게 볼 수 있는 통관의 시각이라는 것을 제 속에 담고 싶었습니다.

학부 09 김수덕 / 다독자 1등

독서를 하는 모두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올해 내가 책을 읽었던 주된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수강하는 전공학점이 많다 보니 여유시간이 많지 않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여가활동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익하고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해 독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 04 이동준 / 다독자 3등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책은 저에게 작가 뿐만 아니라 책 속의 다양한 사람들, 특히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과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는 책과 함께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부 08 한국진 / 다독자 3등



학우에게 추천도서와 이유

저는 '히로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필즈상을 받은 일본의 수학자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수필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즈상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탁월한 재능을 보인 천재가 떠오르는 반면 저자는 자신의 평범함을 강조하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와 삶에서 교훈을 얻은 순간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책이 길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11 김태영 / 다독자 2등

저는 좋은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 박웅현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를 추천합니다. 유명 CD(Creative Director)인 박웅현 씨가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엮은 책으로 한 장, 한 장마다 여러 책들을 묶어 자신만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의 책을 읽는 독법이나,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곳에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다시금 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전혀 손이 가지 않던 고전 문학을 조금씩이나마 읽게 되었는데요. 저의 한 부분, 독자(讀者)로서의 삶 중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학부 07 김현식 / 다독자 2등

책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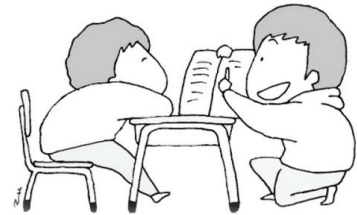
저는 책을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별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책 한권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좋은 책의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들은 내면에 조금씩 쌓여가며 삶을 조금 더 밝게 비춘다는 면에서 마음을 밝히는 별이라 느낍니다. 그런 별들을 하나 둘씩 모으다 보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에도 밝은 별을 따라 걸을 수 있겠죠.

학부 09 윤수빈 / 다독자 3등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고, 제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꿈은 어린이들이 무엇이 되겠다는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잊고 지냈던 이미지와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 저는 그러한 깨달음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려 노력 중입니다.

석사 12 이재현 / 우수이용자

신입생 도우미 프로그램 멘티 인터뷰



이 윤로

학부 11학번

2012학년도 물류반의 신입생 도우미를 맡았던 이윤로입니다. 1년 동안 신입생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일이 많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후배들과 많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입생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얼마나 미미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도우미 역할 중에 하나인 신입생들과 정기적으로 밥을 먹으며 만나는 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20명의 후배를 4명씩 나누어 한 학기 2번씩의 만남을 가졌는데 후배들과 자주 만나며 친해질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신입생과 정기 만남은 제가 먼저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평소 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반에서 활발하고 교우관계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불러 함께 식사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입생과 정기모임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신입생들과 가까웠고 친했던 사람이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신입생 도우미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입생 도우미 일이 이 정도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간 하고나서 생각해보니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선배를 어려워하고, 동아리가 아닌 과내에서의 친한 선배가 있는 학생이 굉장히 드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생활, 강좌추천, 진로, 군대문제, 장학금 같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선배가 없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모두 알아보고 알려주는 것이 신입생 도우미의 역할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볼 사람 없는 설움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정말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1년 동안 신입생 도우미라는 직책을 맡아, 귀찮은 일도 많았지만, 훨씬 더 보람차고, 즐겁고,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2학년도가 되면서 전기·정보공학부로 전공 진입을 하게 됨과 동시에 2학년이 되었습니다. 2011학년도에 새내기로서 학교 생활, 동아리, 군대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신입생 도우미 제도를 기억하는 저는 신입생 도우미에 지원하게 되었고 2012학년도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입생 도우미에 대해 소개하자면 신입생 도우미 제도는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전기·정보공학부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2013년이 되어 4년차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투박하고 체계적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입생 도우미들의 피드백 및 문제 사항 개선 등을 통하여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도우미로 선정된 2학년 학생들은 각각 20여명의 신입생들을 배정받아 1년 동안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선 입학 초기에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에 신입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만의 방향을 설정하여 보람찬 대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입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우미들의 경험담 및 조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신입생들이 조금씩 자신들과 자신을 주위의 환경에 적응해 나감에 따라 학업, 동아리, 군 문제, 이성 문제 등 구체적인 학교생활에 관해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도우미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입생 도우미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도우미와 신입생의 관계를 벗어나 같은 학부의 친밀한 선후배 관계로 지속적인 교류를 합니다.

사실 전기·정보공학부는 학부의 규모가 매우 커서 타 소규모 학부에 비해 선후배 관계 및 학부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 안에는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있으며 그들과의 교류 또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도우미 활동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며 후배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후배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입생들에게 다가가자 신입생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와의 만남 덕분에 조금 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2013년이 된 지금,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학교생활 중 신입생 도우미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신입생 도우미들의 정성스런 노력으로 신입생 도우미 제도가 더욱 더 발전하여 전기·정보공학부의 간판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 및 학우들의 따뜻한 관심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학부 11학번



도우미 장 C반 11학번 김진영

반별 12학번 신입생 도우미	R	물류	랄라	C
	박규민	박성철	곽동훈	강해준
	윤재연	문수홍	변일권	민동문
	이경원	정병관	조민주	이호성
	성장운	정창원	안선우	인경석

전공학습 도우미



‘질문을 받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잘못 가르쳐 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질문 하나만 받아도 녹초가 되기도 했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쁘게 돌아가는 후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도 전공학습 도우미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미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학기가 다 끝나고 도우미님 덕분에 시험을 잘 봤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혼자 오기가 부끄러워서 질문하려 많이 오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데요, 앞으로는 언제라도 환영해 드릴테니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로이론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로이론 및 실험 도우미
학부 08 박 상 언



저는 이번 학기 논리설계 및 실험을 담당했던 학부 06학번 이태희입니다. 지금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 2008년에도 같은 과목 도우미를 담당했었기에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먼저 논리설계 및 실험 교과목이 계절학기에 열리면서 가을학기에 수강생이 예전의 1/3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우미를 찾는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바뀐 강의 방식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적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여러 후배님들과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년간 학교를 떠나 있다가 2012년에 돌아와서 먼저 느꼈던 점은, 이전보다 학부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전기·정보공학부 생활이 팍팍한 점들이 많아서 아쉬웠던 면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이 활동을 맡겨주신 김수환 교수님, 이정화 선생님, 해동학술정보실 이재선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논리설계 및 실험 도우미
학부 06 이 태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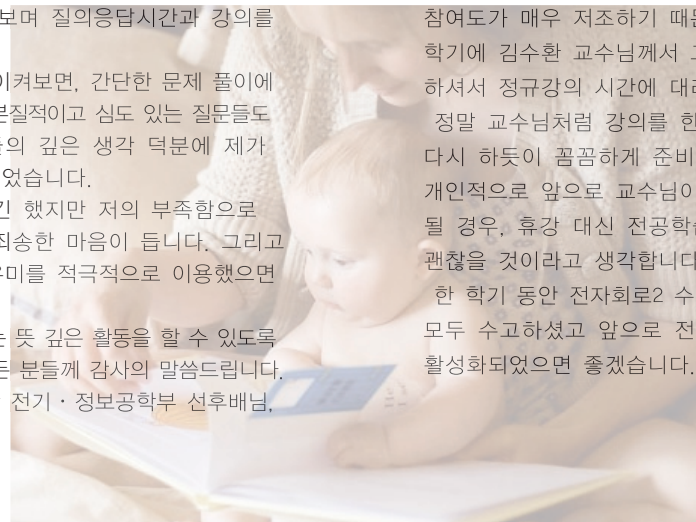
2012년 가을학기에 기초전자기학 및 연습 전공학습 도우미로 활동한 전기·정보공학부 10학번 임종엽입니다. 전공학습 도우미로 선발되고 보람찬 활동을 시작할 생각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질문에 답변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은 제쳐두고, 제가 아는 부분들은 성실히 답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 보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생각으로 전공학습 도우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질문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를 위해 전자기학 교재로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들을 풀어보며 질의응답시간과 강의를 준비해나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받은 질문들을 돌이켜보면, 간단한 문제 풀이에 대한 질문이 많긴 했지만, 그 외에 본질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선후배님과 동기 분들의 깊은 생각 덕분에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작하긴 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강생들이 전공학습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전공학습 도우미라는 뜻 깊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 e생생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전기·정보공학부 선후배님, 동기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전자기학 및 연습 도우미
학부 10 임 종 엽



2012년 2학기에 전자회로2 전공학습 도우미로 활동한 학부 08학번 김효겸입니다.

전자회로2는 전공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듣는 수강생이 필수 과목에 비해 적은 만큼,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물어볼 친구들의 수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입니다. 제가 직접 수강할 때 겪었던 이러한 어려운

점들 때문에 전자회로2를 수강하는 후배분들을 위해 전공학습 도우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공학습 도우미 시간은 강의/질문과 답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강의 같은 경우는 섭섭하게도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김수환 교수님께서 교수님 대신 수업을 한 번 진행해 보라고 하셔서 정규강의 시간에 대리로 수업을 한 번 하였습니다.

정말 교수님처럼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치 그 과목 시험공부를 다시 하듯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교수님이 학회나 출장 같은 일 때문에 휴강하게 될 경우, 휴강 대신 전공학습 도우미에게 수업을 맡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전자회로2 수강생 분들, 다른 전공학습 도우미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 전공학습 도우미 활동이 더욱 알려지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회로 및 실험 도우미
학부 08 김 효 겸

봉사상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학부 10 조창웅

12월 14일 오후 2시. 학부장실에서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학부장님께 봉사상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2012년, 내게는 마치 10년처럼 느껴졌던, 대학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2012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실감났다. 걸핏하면 일이 터지는 전산실을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싶을 즈음이면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과 행사를 진행할 때가 되어 학생회장으로서의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부 밖에 하지 않던 나의 대학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때문에 나에게 2012년은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다.

사실은 괴로웠다. 나의 머릿속은 공부 외적인 것들로 가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학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걱정이 앞섰고 실제로 떨어지는 학점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해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전산실에서 명함을 만들거나 로그온이 안 되는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을 때면 모든 것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던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잠시 공부를 미뤘다. 내가 듣고 싶은 강의는 청강으로 계속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내 마음 속이 그렇다 보니 업무를 처리할 때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던 것 같다.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했고 처리해야 할 일들도 급하다는 이유로 미뤄두고 처리하지 못했다. 일종의 직무 유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2012년이 후회되지는 않는다. 공부를 조금 못 하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던 궤도에서 다소 이탈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후회되는 일이 없었던 해가 있었으랴? 다만 그 일이 조금 많았을 뿐, 분에 넘치던 격려와 사랑을 받았던 해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미숙한 면이 많았던 나를 믿고 옆에서 도와주던 고마운 학우들과 선후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 확신한다.

비록 이제 나는 11학번 홍찬군에게 학생회장을 위임하고 물러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만큼, 또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생각이다. 차기 회장을 맡은 홍찬군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었던 내 주변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친다.



2012년도 봉사상 수상자 명단

학부 07 이우석	학부 07 황규영	학부 10 김병호	학부 10 이성찬	학부 10 조창웅
학부 11 김진영	학부 11 김홍찬	학부 11 박은정	학부 11 유형석	학부 11 이윤로
학부 11 하호권	학부 12 국대호	학부 12 박재현	학부 12 변일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따뜻한 마음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서 다같이 ~

2012년 제 3회 전기·정보공학부 봉사 활동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연계하여 6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님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1200장의 연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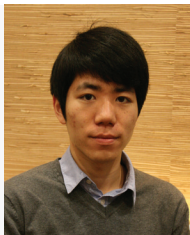
학생센터 특강 후기

- 공대인의 진로 선택과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 강 력 대표

-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박사 수료
- 중소기업청 추천 신지식인 선정
- 국내 우수기업 혁신 주도
- 現 KR 컨설팅 대표 + 한동대 겸임교수



학부 12 윤서호

스무 살.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 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나이이다. 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청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했고, 대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학과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스무 살인 나에게 ‘진로’라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단어이고, 특히 주변에서 기대를 받는 ‘서울대생’이기에 잘못된 진로를 선택할까봐 더욱더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강락 대표님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꺼내 보이시며 “진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해 주신 것 중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바로 ‘B급도 C급 사이에선 A급’, ‘일부러 노하우 고갈시키기’와 ‘상대우위 파악의 중요성’이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대표님의 인생은 대우 중공업에 입사하고 나서도 원하던 인천이 아닌 경남 양산의 시골 촌구석에 발령받으면서 더욱 꼬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이강락 대표님이 지금의 KR 컨설팅 대표로 있게 한 시발점은 바로 대우정밀공업사였다. 대표님은 자신이 C급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결국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스카웃 제의를 받을 수 있었다. A급들 사이에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C급들 가운데서 무한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러 노하우 고갈시키기’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이다. 처음 컨설팅 회사에 가서 3개월 간 적응하지 못해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하다가 ‘너는 컨설턴트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 10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들은 대표님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자비를 투자해가며 수십 번의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며 대표님은 제조업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제조업 컨설팅을 위한 양질의 자료도 갖추게 되었다. 남들 같았으면 자신이 고생하면서 얻은 자료를 절대 남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텐데, 대표님께서서는 흔쾌히 남들에게 공개하고, 나누어 주셨다. 자신의 노하우를 일부러 남에게 알려줌으로써 남들에게는 호의를 얻고, 자신은 새로운 노하우 개발의 필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도 있듯이 대표님은 끝없이 흐르기 위해 일부러라도 하는 고생을 택하셨다. 가끔은 시험 공부한 필기조차 남에게 보여주기 귀찮고, 또 조금은 꺼려지기도 하는 나에게 대표님의 자세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예시는 ‘상대우위 파악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하는 예시이다. 컨설턴트를 하기에는 사교성이 부족했던 이강락 대표님은 컨설팅 회사에서 심각한 침체기를 겪으며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솔하게 하셨다고 한다. 결국 대표님은 그 고민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답을 찾아었고, 그 해답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함은 물론 대표님을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언제나 인생은 상대평가이기에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은 남들이 잘하는 걸 나도 잘하고 싶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조언이었다.

사실 다 진부한 이야기일수도 있다. 저런 한 구절 한 구절은 여러 명언집들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명언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 명언이 실제 사례와 접목되었을 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강락 대표님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대표님의 강연을 빛이 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나 역시 강연을 듣고 깊게 감명 받았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기회의 신은 수없이 찾아온다. 지금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기회의 신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는 뒷머리가 없는 기회의 신이 돌아가기 전에 그의 앞머리를 꼭 붙잡아야 한다. 대표님의 말씀대로 진로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진로를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바로 끝없이 노력하고 개발하는 우리 자신인 것이다.





교내 영화 감상회 - The Aveng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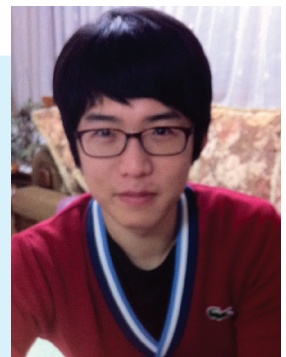


학부 09 강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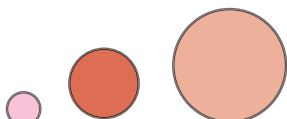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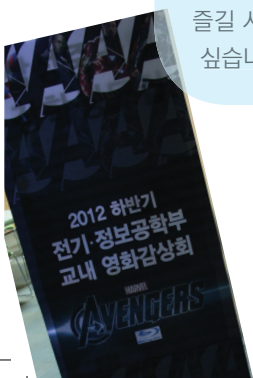
어벤져스가 개봉하였을 당시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보지 못하였는데, 2012년 전기·정보공학부 하반기 영화감상회에서 「어벤져스」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였고 학부에서 제공하는 햄버거 세트도 먹을 겸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최되었던 영화감상회는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교내—그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301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관람면에서는 영화관보다 질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염려는 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된 118호는 이전과 달리 매우 깨끗하고 좋아졌으며, 화면 또한 100인치가 넘어 실제 영화관 못지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질 역시 1080p로 매우 뛰어났고 음향도 매우 좋았습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본 것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어언 4년 만인데, 그 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감동까지 안겨주어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학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우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영화감상회가 우리 학부의 정기적인 행사로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줄곧 코엑스에서 전기·정보공학부 영화감상회가 개최될 때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에도 신입생들에 비해 나이도 많으면서 공짜로 영화를 볼 기회라고 하여 따로 신청을 하고, 또 그곳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2012년 2학기 영화감상회는 ‘우리의 301동’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벤져스’는 감상회 전에 따로 감상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잘 만들어진 영화였기에 감상 내내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시험과 과제 이야기만 나누던 동기들과 마음을 놓고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들과는 기껏해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오락이었는데, 이렇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따로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는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을 배려해 이러한 행사를 열어준 학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의 진행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교수님 및 학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학부 07 김래호





Undercover Stories

2012.08 - 2012. 12

◦ 학부 승인없이 무단도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등
학부 10 김창영



2등
학부 09 정승범



3등
학부 09 장재영

로그 공모전



기자단 후기



우수논문상 & 최우등 졸업자 시상식

2012. 08. 29



학부 07 강권정

지난 학기의 경험을 살려 이번 학기는 보다 쉽게 작업을 끝낼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소식지 제작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 학우 여러분들과 처음 홍보도우미 역할을 맡아 수고해준 준석이, 그리고 인터뷰 자료 수합과 연락 및 섭외에 큰 도움을 주신 유은영 선생님과 소식지 제작에 총괄역할로 고생하신 조도희 선생님, 교정을 도와주신 이재선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내 영화감상회

2012. 11. 15



교내 특강 - 공대인의 진로선택과 매니지먼트

2012. 12. 12



다독상 & 통사상 & 축구상 시상식

2012. 12. 12



학부 07 김준석

안녕하세요. 홍보도우미로서 처음 활동한 김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홍보 도우미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얻어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시기를 놓쳐서 혹은 잘 알지 못해서 놓친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지가 동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작에 도움 주신 수 많은 동문들과 특히 은영 선생님, 도희 선생님 그리고 같이 홍보 도우미를 한 권정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Tel : 02-880-7241

Fax : 02-871-5974

<http://ece.snu.ac.kr>

Designed by 학부 07 강권정, 학부 07 김준석